

〈제 636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세계 환경의 날’ 맞아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4일 ‘세계 환경의 날’ 을 맞아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다짐하며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 로 제정함에 따라 광주은행은 ESG 경영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참하고자 송종욱 은행장과 전임직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퇴근을 자처하며 캠페인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솔선수범을 통해 직원들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하차 후에는 본점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기아 광주공장

◆ 기아챌린지 드림토크콘서트 개최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최준영,송호성)은 지난 9일 광주시 남구에 위치한 수피아여자중학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 형성을 돕고 향후 진로와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멘토 강연 프로그램 기아챌린지 드림토크콘서트 1회차 공연을 개최했다.

‘드림토크콘서트’는 2021년 기아 광주공장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기아챌린지’의 한 부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멘토들의 특별 강연 프로그램이다.

이날 1회차 공연으로 진행된 드림토크콘서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의 저자로 유명한 김수영 작가가 학생들의 멘토로 나서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 했다.

보해양조

◆ 과즙 주류 시장 당찬 도전장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최근 하드셀처 신제품 '보해셀처'를 출시하고 GS25에서 테스트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드셀처는 알코올에 탄산수와 과즙을 섞은 주류로, 시원한 탄산감에 과즙의

풍미가 특징인 주류다. 맥주와 비슷한 도수지만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보해양조가 내놓는 하드셀처 신제품 보해셀처는 탄산소주인 퓨어시티와 유자를 넣은 유자러브 등 2종이다. 알코올 도수 5도에 무가당 제품으로, 여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이다. 핑크 솔트와 신안토판염을 첨가해 쓴 맛을 잡았고 미세 에어포켓으로 알코올 냄새를 최소화했다.

보해는 GS25를 통해 보해셀처를 테스트한 뒤 판로를 확장할 계획이다.

오텍캐리어

◆ 음식물처리기 '클라윈드 위즈' 선보여



오텍캐리어(회장 강성희)는 지난 7일 음식물처리기 '클라윈드 위즈'를 출시했다.

클라윈드 위즈는 미생물 '바리미'가 유해균이나 곰팡이 없이 음식물을 최대 95% 분해하고, 1일 최대 1.2킬로그램(kg) 음식물을 처리한다. 또한 소음은 35데시벨(dB)로 불편함을 줄였고, '반영구 하이브리드 탈취' 기능을 담았다. ▲유해 및 악취균 제거 ▲자외선(UV)-C 살균 ▲활성탄 흡착 3단계로 관리할 수 있다.

제품은 별도의 설치 없이 콘센트만 꽂으면 되고, 분해 후 남은 잔여물은 2~3개월마다 한 번씩 일반쓰레기에 버리거나 천연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해양에너지

◆ 투자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최고 달성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1위’에 올랐다.

해양에너지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90~100km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투자를 집행하여, 광주 및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배관 투자의 결과로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최고인 99.7%(2020년 기준)에 이르게 되어,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한, 해양에너지는 2021년에도 광주 및 전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총 450억원의 투자예산을 책정하여, 지역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I. 광주경충 소식

<중장년센터 제20,2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본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지난 9,10일 이틀 동안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9층 특강실에서 제20,2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직자에게 일 중심의 경력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참여한 인원 62명 모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제3차 운영협의회>



본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 제3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운영협의회는 노사민정 개별주체간의 협조체계 구축과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지원, 파트너십 구축 등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한 협의체로, 이날 운영협의회에서는

성과 홍보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국 일지(6.7 ~ 6.11)

6.7 (월)	● 광주청년일경험드림 홍보위원회 회의	6.10 (목)	● 중장년센터 제21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산업안전공단 재정지원 서면심사
6.8 (화)	● 6월 고용전략회의		
6.9 (수)	● 중장년센터 제20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운영 ● 제3차 노사민정 운영협의회	6.11 (금)	● 제1522회 금요조찬포럼 ●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분과위원회 ● 중기청 여성기업 심의위원회

〈제1522회 금요조찬포럼〉

강사: 심용환(역사N교육연구소장) 주제: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6월 11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연회장에서 심용환 역사N교육연구소장을 초청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란 주제로 제1522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 일제강점기 이전의 제국주의 국가 역사는 항해술로 인도와 동남아를 점령했던 대영 제국이었다. 유럽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의 식민지화도 영국과 경쟁국이었던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초토화 되었다. 영국은 중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이란 식민지 확보의 특징이 나타난다. 특히 영국은 육로와 해로를 독점하기 위해 인도와 홍콩을 교두보로 확보했다. 그때 조선이란 나라는 인도나, 홍콩에 비해 영국에겐 너무 먼 땅, 매력적이지 못한 국가였다. 국내 역사에서도 거문도 사건 외엔 영국과 연결 된 역사적 관계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가 그 중 하나다. 오히려 러시아라는 국가가 조선의 영향권에 있었다.

영국이 해로를 중심으로 강국이 되었다면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비롯해 육로를 통해 영토를 넓혀갔다. 그 중심에 중국, 일본, 조선이 있어 아관파천을 비롯해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 러일 전쟁의 영향 등으로 많이 얽혀있다.

러시아는 결국 중앙아시아를 장악해 가고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비롯해 조선의 열지 않는 항구까지 확보해 신흥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신대륙 국가와 사이의 태평양을 목표로 조선, 일본의 땅을 러시아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방안이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되고 위의 결과가 포츠머스 조약 등으로 연결되어 미국의 친일적인 힘으로 인한 조선은 점점 더 일본의 영향력 안으로 편입되었다.

일본은 세력을 확장하고 통일 된 정치세력의 힘으로 당시 열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상업의 발달이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가 축적되고 여기에 정치세력이 합심하게 되었으며, 메이지 유신 또한 일본의 성장 기틀이 된 근대화의 뿌리가 되었고 그 야심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함께하는 서양 열강국가와 은밀한 손을 잡고 탐욕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다. 당시 조선은 쇄국정책과 개방정책 등으로 찬반이 갈려 분열하면서 열강국들의 정치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제관계에서 고립되어 멸망으로 이어졌다.



1. 판례 동향

부하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했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이를 직장 내 갑질로 볼 수 없음(2020구합330).

1. 사실관계

- 피고(이하 ‘A기관’)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되는 행정기관이며,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는 1989년경 지방농업기원보로 임용되어 면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는「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갑질행위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2019.10.15.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음.
- A기관은 3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는데, ① 소속 부서직원(이하 ‘직원B’)이 작성한 보고서를 수차례 수정·반려 처리한 점(이하 ‘징계사유1’), ② 직원B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이하 ‘징계사유2’), ③ 부서 직원들이 듣는 앞에서 지인과 사적으로 통화하면서 큰소리와 욕설을 했다는 점(이하 ‘징계사유3’)임.
- 법원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법원은 3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1에 대한 판단) 법원은 ① 직원B가 2019.4.24.부터 5.2.까지 총 12건의 보고서를 상실했고, 이 사건 근로자는 3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보고서를 상실했던 즉시결재를 했다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보고서를 반려하는 경우 반려사유를 기재하거나 구두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긴급한 사항은 결재를 상실했음과 동시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근로자가

Ⅲ. 노사 및 법제동향

직원B에게 갑질을 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2에 대한 판단) 또한, 직원B는 본인에게 돼지비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비하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승강기에 같이 있었던 다른 직원이 진술하기로, 직원B에게 운동을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돼지비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때, 위와 같은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시함.
- (징계사유3에 대한 판단)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지인과 통화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함.
- 따라서 상기 3가지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갑질이 성립되지 않으며,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부하직원의 보고서를 몇 차례 반려해 직원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라도 반려 시 사유 및 수정사항을 설명했으면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또한, 사무실 내에서 통화 중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나아가 금번 판결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부문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 징계사유1과 같이 업무 향상을 위해 부서원에게 업무 독려 및 평가, 지시 등을 수차례 실시하는 정도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임(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p22).
 - 또한, 징계사유2는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동일한 결론에 이렀을 것임.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징계사유3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